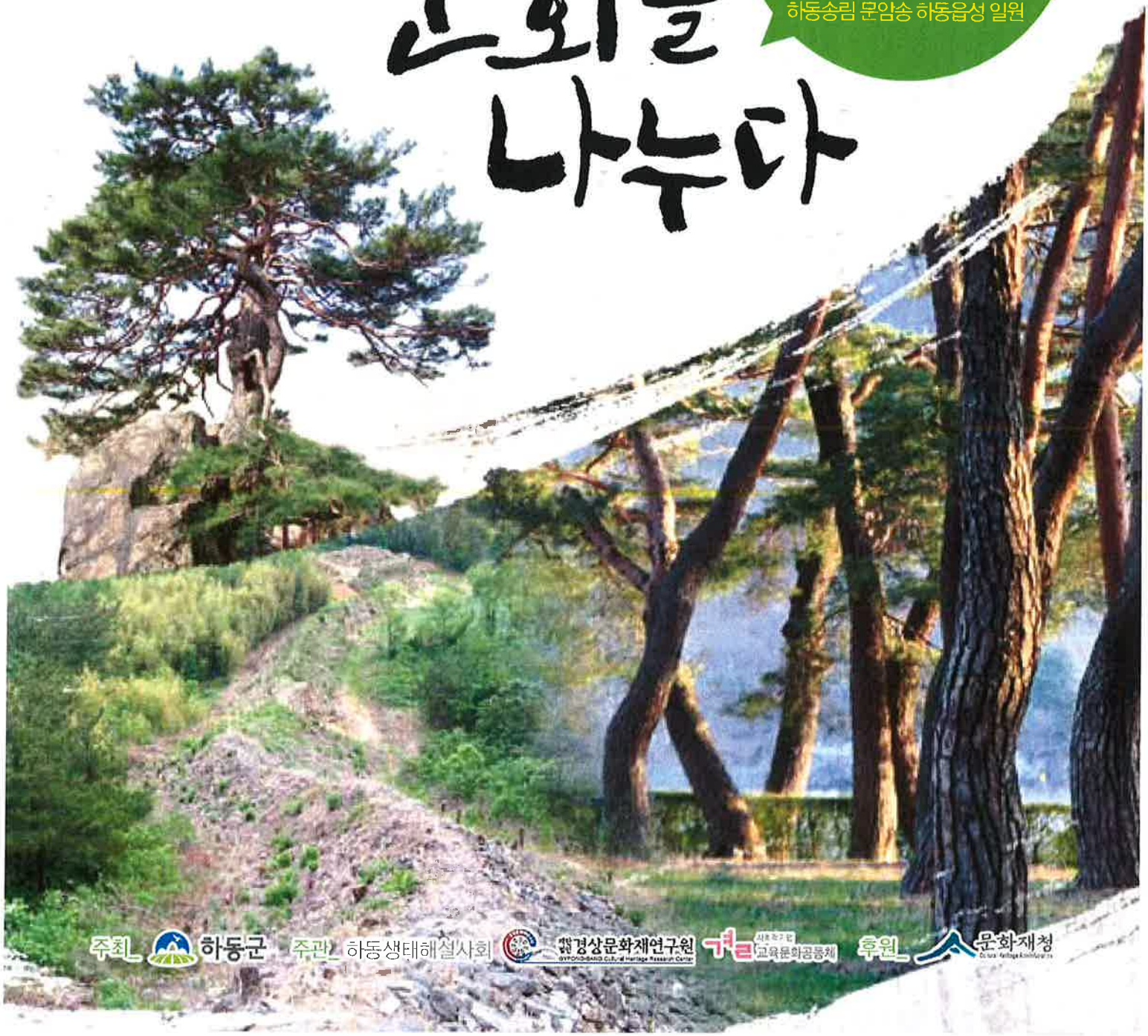
생생문화재 문화재청 선정
2013년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하동에서 나와 우리

문화를 나누다

2013년 3월~11월
하동송림 문암송 하동읍성 일원



주최_ 하동군 주관_ 하동생태해설사회 경상문화재연구원 교육문화공동체 후원_ 문화재청

하동에서 나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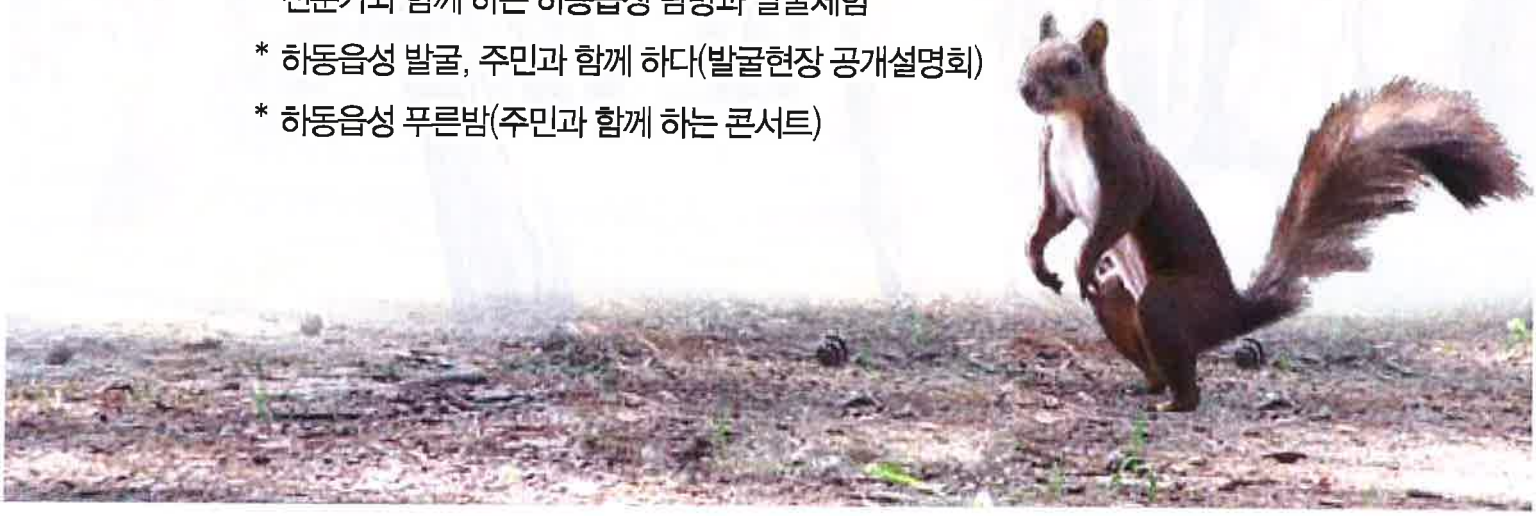
문화를 나누다

2013년 3월~11월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재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삶의 여유와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1. 하동송림을 품다
   * 국악과 숲의 어울림
   * 하동송림 사진전
   * 그림으로 마음으로 담아보는 하동송림
   * 하동송림이 전하는 따뜻함
   * 하동송림 모니터링
2. 자연색을 따라 걷는 길(문암송 탐방)
3. 하동읍성, 주민과 함께 하다
   *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하동읍성 탐방과 발굴체험
   * 하동읍성 발굴, 주민과 함께 하다(발굴현장 공개설명회)
   * 하동읍성 푸른밤(주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



하동송림 (천연기념물 제 445호, 2005년 2월 18일 지정)

하동송림은 영조21년(1745년) 도호부사 전천상(田天祥)에 의해 광양만 바닷바람과 섬진강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하동을 '백사청송(白沙青松)의 고장'이라 하듯, 송림은 하동의 대표 이미지이며, 군민의 자긍심이 서려있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한편, 동학혁명과 6.25전쟁의 역사적 현장으로 민초들의 한이 서린 곳이며, 봄날 아낙네들의 화전놀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날 하동송림에서는 지역민의 소망을 담아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가 진행되며, 이웃 광양시민과 함께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됩니다. 이렇듯 하동송림은 하동의 역사문화와 함께 했으며, 오늘날 사람들에게 쉼터와 문화적 공간입니다.

하동송림은 생태학적으로 99%가 육송이며, 해송이 1%를 차지합니다. 900여 그루의 소나무 중에서 수령이 150년 이상인 노송이 대부분입니다. 하동군은 송림의 생육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91년부터 3년 간격으로 개방지와 비개방지로 구분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소나무를 키워 보급하기 위해 육묘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여년 세월을 살아온 노송과 맑은 섬진강, 드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가 됩니다. 단일 수종의 최대 면적과 숲의 조성배경 등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동읍성 (사적 제 453호. 2004년 5월 31일 지정)

하동읍성은 양경산(해발 149m) 남쪽으로 뻗어내려 오는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석축성입니다. 북쪽 정상부에서 남쪽의 계곡부를 감싸는 형태를 띠며, 성곽의 둘레는 1,400m 정도 됩니다. 동·서·남쪽에 성문을 두고, 문에는 옹성(甕城)을 설치했으며, 11개소의 치성(雉城)이 있습니다. 성곽의 바깥에는 해자(垓字)를 설치하고, 해자에서 일정부분 이격하여 양마장(洋馬墻)을 둘러 해자와 성벽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동읍성은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에 남해안 일대 잦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되었습니다. 태종 17년(1417년)에 처음 축성되었으며, 세종조와 문종 원년(1450년)에 증축, 세조 3년(1457년)에 개축되었습니다. 숙종 29년(1703년) 현청(縣廳)을 진답면(陳畓面, 현 하동읍)으로 옮기면서 폐성되었습니다. 하동읍성은 행정·군사적 기능이 잘 조화된 복합적 기능을 수행했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하동읍성은 정유재란 때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하동현청 별사에서 2일간(1597 5월 28일~29일) 머물렀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던 사전총통 3점을 비롯한 무기류 유물 100여점이 1896년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동읍성은 세종 20년(1438년) 축성신도(築城新圖) 반포 이전에 처음 축성된 성벽에서부터 세종연간과 그 이후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축성양식을 단일성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헌에서만 확인되었던 양마장 방어시설이 최초로 조사된 유적지입니다. 최근 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옹성(甕城) : 성문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의 외부에 설치한 이중성벽
치성(雉城) : 성 구조물의 일부로 성벽의 바깥으로 덧붙여서 공격과 방어에 용이하도록 쌓은 성벽
해자(垓字)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를 둘러서 판 못이나 도랑
양마장(洋馬墻) : 우마장(牛馬墻)이라고도 하며, 성벽, 해자와 함께 방어시설로 쌓은 흙둔덕

하동 축지리 문암송(천연기념물 제 491호. 2007년 5월 7일 지정)

하동 축지리 문암송은 높이가 12m, 가슴높이 둘레가 3m, 수령이 600여년 된 노송입니다. 옛날부터 문인들이 즐겨 찾아 시회(詩會)를 열었던 곳으로 문암송(文巖松)이라 칭송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문암송계를 조직하여 보호해왔으며, 백중날을 전후해서 '문암송대제(文巖松大祭)'를 지내고 있습니다.

문암송은 바위 위에 뿌리를 박고 자라면서 바위를 둘로 쪼개고, 마치 편평한 너럭바위 위에 걸터앉아 있는 신선과 같이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넓은 평사리 들판이 내려다보여 경관이 아름답고, 문암정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문암송은 특이한 생육환경과 아름다운 수형으로 식물학적, 경관적 가치가 큽니다.

바위를 뚫고 자란 문암송은 강인한 생명력에 경외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늘푸른 소나무의 무한한 생명력과 풍성한 평사리 들판을 따라 계절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움 경관을 통해 자연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동송림을 품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하동송림! 군민에게는 문화공간으로,
탐방객에게는 하동의 추억을 담아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국악과 숲의 어울림

문화재 속 공연의 새로운 모습, 우리 전통예술과
송림이 어울려 숲의 가치를 재생하며,
하동송림의 역사 문화를 새롭게 느껴보는 공연입니다.

일시 2013년 7월 13일(토) 16:30 ~ 18:00 장소 하동송림

하동송림 사진전

하동송림과 하동의 옛 사진, 송림의 생태사진 등
전시를 통해 하동송림과 하동의 역사 문화를 살펴봅니다.

기간 2013년 7월 13일|토| 13:00 ~ 7월 20일|토| 14:00

장소 하동송림 일원

*하동송림과 하동의 옛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그림으로 마음으로 담아보는 하동송림

하동송림 생태해설과 함께
자연놀이도 해보고
소나무와 숲의 생물을 세밀화로
그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2013년 7월 6일|토| ~ 10월 26일|토|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0:30 ~ 12:30. 14:00 ~ 16:00

장소 하동송림

하동송림이 전하는 따뜻함

하동송림내에 1년간 쌓인 솔가리를
겨울에 난방용으로 필요한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의 행사입니다.

일시 2013년 11월 23일|토| 10:00 ~

장소 하동송림

자원봉사 모집_솔가리 수거를 도와주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동송림 모니터링

계절별 하동송림의
소나무와 송림 내 식생의 생태관찰를 관찰합니다.

기간 2013년 3월 ~ 11월

모니터링 : 3월. 6월. 9월. 11월 계절별 1회(총4회)

장소 하동송림 일원(개방지역)

자연색을 따라걷는길 (문암송탐방)

강, 산, 들판, 마을이 어울어진 길을 따라 자연의 색을 느끼며, 천연기념물 제 491호 하동 축지리 문암송을 찾아가는 길,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만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기 간 2013년 4월 6일|토| ~ 11월 2일|토|(6회) * 7 ~ 8월 쉼
탐방일 : 4월 6일|토|, 5월 25일|토|, 6월 22일|토|, 9월 28일|토|, 10월 12일|토|, 11월 2일|토|

출 발 지 평사리 공원

걷 는 길 평사리공원→ 문암송 → 동정호→ 평사리공원

참여대상 초등학생 ~ 성인,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함(매회 20명 내)

주요내용 문암송 – 문화재 및 소나무 생태해설 / 동정호 – 민요나 판소리 따라 배우기
평사리 – 들판과 부부송 감상

우천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하동읍성 주민과 함께하다

하동읍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아보며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발굴체험과 문화공연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동읍성 탐방과 발굴체험

하동읍성을 발굴 조사한 고고학 전문가와 함께
하동읍성을 둘러보며, 읍성의 구조, 성돌 쌓기 방법, 유래 등을 알아봅니다.
발굴체험장에서 유물수습 과정과 수습된 유물의 복원체험을 통해
땅 속에 숨겨진 역사의 현장을 확인합니다.

기 간 2013년 4월 6일|토| ~ 10월 26일|토|(6회) 13:30 ~ 17:00 * 7~8월 쉼
체험일 : 4월 6일|토|. 5월 4일|토|. 6월 1일|토|. 9월 7일|토|. 10월 5일|토|. 10월 26일|토|

장 소 하동읍성

참여대상 초등학생~성인,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 함(매회 20명이내)

하동읍성 발굴 주민과 함께하다

하동현의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로써
옛 명성을 잇고 있는 하동읍성!
그 역사적 현장의 발굴 성과와 함께 남문지 일대의 복원 진행성과를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3년10월 26|토| 15:00 ~ 17:00

장소 하동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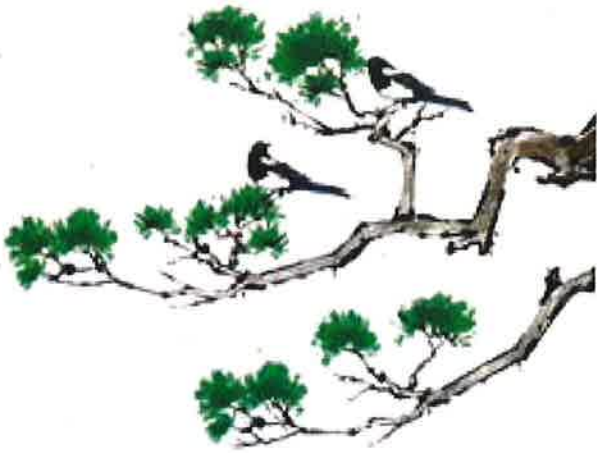
하동읍성 푸른 밤

풍성한 가을날 밤에 주민, 학생, 학부모를 모시고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3년10월 26|토| 17:00 ~ 19:00

장소 하동읍성 우천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생생문화재 문화재청 선정
2013년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하동에서 나와 우리

2013년 3월~11월

하동송림 문암송 하동읍성 일원

문화를 나누다

문의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5-880-2365 하동생태해설사회 010-4157-2483

(재)경상문화재연구원 055-744-2370 교육문화공동체 결 062-432-1318